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

이 인 영*

경주대학교 시각예술디자인과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적 문화 콘텐츠인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첫째, 민화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제작된 300여 개의 민화와 해학에 대해 문헌을 조사하였고, 이 문헌들에 나타나는 민화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인 해학적 표현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적용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여섯 개를 개발하였다.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애호된 그림을 의미하며, ‘해학’은 ‘익살스러운 가운데 점잖은 말이나 짓’을 뜻한다. 민화에 나타나는 해학적 표현은 내용적으로는 서민의 삶과 염원, 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 비판을 담고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뒤틀림과 왜곡’, ‘생략과 과장’, ‘변용과 상징’을 통해 익살과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해학적 표현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인체와 미(美)의 과시에 대한 풍자를 담고, ‘뒤틀림과 왜곡’, ‘생략과 과장’, ‘변용과 상징’에 초점을 맞춰 각각 2개씩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개발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I은 성형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커다란 눈과 관능적인 입술에 대한 해학을 ‘생략과 과장’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 II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날씬한 인체에 대한 해학을 ‘뒤틀림과 왜곡’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부나 세련미를 대변하는 명품 가방에 대한 해학을 ‘변용과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해학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은 한국적 문화 콘텐츠로부터 우리만의 표현 기법을 찾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접목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민화, 해학,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교신저자: 이인영, 2inyoung@hanmail.net

접수일: 2017년 5월 29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3일

I. 서론

정치·경제적으로 각박하고 복잡한 사회상을 가진 현대 사회에 ‘유머(humor)’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The Professors Tims, 2006).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유머 코드가 패션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며, 삼성디자인넷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가치 또한 확실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Fashion trend, 2016). 패션·디자인 모두 다양한 미감을 위해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적 유머가 드러나는 민화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순진함, 과격적인 조형미, 대중성으로 인해 외국에서 주목받아 온 예술 분야다(Kim, J. S., 2001). 그러나 패션을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한국적 유머인 해학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학적 표현에 주목한 선행 연구(Lee, 2012; Oh, 2006; Shin & Kang, 2013)를 살펴보면 단지 우리나라 회화에 나타나는 해학미에 대한 연구나 상업 공간에서 나타나는 해학 혹은 특정 전통 문양 등에 나타나는 해학적 표현 특성만을 연구하였다. 민화와 패션을 연관 지어 연구한 선행 연구(Kweon et al., 2010; Song & Kim, 2011)에서는 민화의 미적 특성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을 연구하였거나, 책가도에 나타난 구성 요소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교육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민화의 해학성을 표현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는 개별적으로 독창적인 한국 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는 민화로부터 해학적 표현 특성을 찾고 그 표현에 나타난 특성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하여 작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는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의 문헌 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학적 표현 특성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하여 300여개의 민화에 나타난 해학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 문헌들에 나타나는 민화의 여러 특징 중 하나인 해학적 표현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범위는 민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민화로 한정지어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은 민화의 특징과 기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해학적 민화에 담긴 내용과 방법에 의한 표현 특성을 적용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6개를 개발하였다.

민화에 나타난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화의 한국적 미감과 세계 보편적 미감을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민화

1) 기원과 개념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애호된 그림이라는 뜻이며, 조선 후기와 말기에 서민 대중들 사이에 유행한 독특한 형식의 그림을 뜻한다. 그러나 민화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기원은 선사시대 벽화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민화의 시작은 울주 대곡리 암각화인 <Figure 1>을, 좁은 의미에서는 <Figure 2>와 같은 처용문배(處容門排)라 보고 있다(Chung, 2012). 일반적으로 민화라 일컫는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의 회화는 새해 첫날 문에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의미로 붙이던 신



Figure 1. 울주 반구대 암각화.
From Kim, J. S. (2001).
p. 106.



Figure 2. 처용관복.
From Chung. (2012). p. 167.

라시대의 처용 문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폭 넓게 확산되었다(Chung, 1995).

‘민화’라는 용어는 1926년 민예품전람회에서 호 신용 부적의 일종인 오즈에(大津繪)와 같은 민예적 그림들을 지칭하기 위해 일본 민예연구가인 야나기 무네요시(Yanagi Muneyoshi, 柳宗悦)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또한 무네요시는 1937년 「工藝的繪畫」를 통해 민중 속에서 생겨나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유통시킨 그림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Kim, J. S., 2001). 그의 언급을 토대로 볼 때 민화는 창의성보다는 실용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여러 장 그려지고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상징성과 민속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 규정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민화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면, 이규경(李圭景)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언급한 ‘속화(俗話)’가 있다. 속화란 서민의 병풍, 족자, 벽에 붙이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이밖에 ‘한화(漢畵)’, ‘겨레 그림’, ‘우리 겨레의 미의식과 정서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옛 그림’ 등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Yoon, 2009).

2) 역할과 기능

민화는 엄격한 신분제가 흔들리던 18세기 조선의 소통 도구였다(Lee, 2010). 신분이 불분명한 무명 화가에 의해 그려짐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규범

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주류 화풍으로부터 벗어나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학문적 이념을 담은 서화나 이상적인 산수화를 그렸던 사대부 그림과는 다르게, 서민의 토속 신앙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이 가졌던 삶의 염원과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Chung, 2011a).

민화는 학문 정진을 위한 정신 수양이나 감상을 위한 사대부 그림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실생활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그려진 실용적 그림이다. 그려진 주제를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십장생도·책가도·호피도·까치호랑이 등이 있으며, 제작 의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실용적·장식적·상징적 측면의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Kim, J. S., 2001).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은 조선 생활사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을 제작 의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 측면의 민화는 집안의 경조사를 위한 병풍이나 <Figure 3>과 같이 족자로 만들어져 생활공간을 연출하거나, 가리개 등으로 만들어져 방한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민화는 장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생활 속 쓰임새를 갖는다. 둘째, 장식적 측면의 민화는 자유로운 표현과 오방색의 사용, 한 벌을 이루는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생활공간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민화는 감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생활 속 공간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꾸며준다. 셋째, 상징적 측면의 민화는 유교적 덕목을 전하기 위한 그림 글자로 그려져 서민들의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현실의 안정을 얻기 위한 염원이나 믿음이 민화의 화제로 그려져 주술적 효과를 얻는 데 사용되었다(Ha, 2000). 이러한 기능을 갖춘 민화는 도덕이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 민간 신앙에 대한 믿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ure 3. 두겹달이 문에
장식된 민화.
From Chung, (2012). p. 35.



Figure 4. 민화의 본.
From Yoon, (2009). p. 26.



Figure 5. 신령스런 거북.
From Heo, (2006). p. 40.



Figure 6. 책거리.
From Chung,
(2011a). p. 19.

3) 특징과 기법

민화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서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민화에 나타난 표현의 특징과 기법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특징과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첫째, ‘본’의 사용이다. 민화는 밑그림을 베껴 그릴 수 있는 <Figure 4>와 같은 ‘본’을 사용한다. 다수의 민화에는 단순화되거나 독특하게 도식화되어 그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도안도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그림도 밑그림에 해당하는 ‘본’을 사용함으로써 반복적 재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대부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소장되는 특권층만의 그림이 아닌, 다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다(Yoon, 2009). 둘째, 단순화되고 평면화된 형태이다. 궁중 회화나 문인화는 현실적인 형태에 기반을 두어 그려지지만, 민화는 형태가 화가의 의지에 의해 재구성되어 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화에 그려지는 대상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가 작가의 생각과 느낌에 의해 단순화되고 평면화되는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민화를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그림이 아닌 현실감이 결여된 그림이 되게 하

였으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한다 (Chung, 2011a). 셋째, 다시점의 공간이다. 민화 속 공간은 실제 경치를 그리는 주류 화풍에서 벗어나 있다. 민화 속 공간을 살펴보면 다 시점과 좌우 대칭 구도의 평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서양화는 정해진 일정한 거리에서 그리는 투시법을 사용하는 반면 동양화나 민화는 그리는 자나 보는 자의 위치를 이동시켜 여러 개의 형태가 하나의 화폭에 존재하는 다시점으로 그리고 있다. 민화는 과학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입체과의 다시점과는 달리, 바라보는 자와 자연을 하나로 보는 자연 합일에 의한 다시점이다(Heo, 2006). 이러한 다시점은 <Figure 5>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구와 가구 위에 원통의 윗부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시점으로는 볼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좌우 대칭 구도’다. 민화 속 구도는 좌우 대칭으로 그림의 반복적인 재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특징이다(Figure 5). 이와 같은 화폭 속 공간은 다시점과 좌우 대칭으로만 들어지며 전통적 화풍의 공간보다도 더 도식적인 평면성을 지니게 되어 추상적인 조형성을 띠게 한다(Chung, 2011a). 다섯째, 원근 무시이다. 민화에는 사물간 거리가 무시되어 나타나고 있다(Figure 6). 이것은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림에서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객관

Table 1. 특징과 기법.

특징	분류	기법
재료	본	
형태	단순성, 평면성	
시점	다시점	
구도	좌우 대칭	
원근	무시	
채색	상징성, 윤리관 반영	

적인 거리를 바탕으로 화폭을 구성하는 서양의 원근법과는 다르게, 민화는 그리는 화가가 의도하는 바와 화폭 안에서 중요도에 따라 사물 간 상호 비례와 위치가 정해진다고(Heo, 2006). 여섯째, 상징성과 시대적 윤리관이 나타난 채색이다. 민화는 유교 사상이나 유교 미학의 영향으로 수목 담채화가 기본을 이루는 전통 회화에 비해 장식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An, 2000). 기본적으로 백·청·흑·적·황의 원색적이고 밝은 색조의 오방색을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수묵으로 처리한 모든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민화에서 색채는 그려지는 대상의 실질적인 색으로 표현되기보다는 각각의 색상이 가지는 상징성과 시대적 윤리관에 맞춰 채색되어 있다. 이러한 색상의 의미와 상징을 통해 벽사, 길상 등의 염원을 표현하였다(Heo, 2006).

2. 해학

1) 정의와 개념

해학(諧謔)은 사전적으로 ‘익살스러운 가운데 점잖은 말이나 짓’을 뜻하며 유머로 번역된다(Nam, 2003). 해학에 사용된 익살스럽다는 뜻의 ‘해(諧)’자는 말씀 ‘언(言)’과 ‘다함께’라는 뜻의 ‘개(皆)’자가 합쳐져, 서로 다른 말들이 화합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익살스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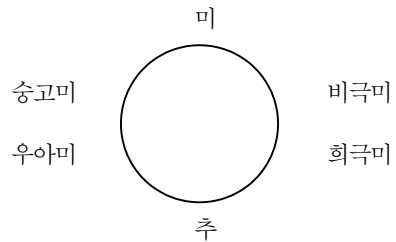


Figure 7. 미의 범주.
From Jo, (2004), p. 161.

짐과 태도의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다(Heo, 2015). 이러한 해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해학을 구사할 주체와 해학의 대상이 있어야 하며, 대상은 미적 가치를, 주체는 미적 심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학을 들어줄 청중, 즉 관람하거나 웃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Lee, 2004).

영어로 표기된 해학은 유머이지만 해학과 유머는 개념에서 차이를 지닌다. 유머는 막스 데스와(Max Dessoir)가 분류한 <Figure 7>의 미의 범주 중 희극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조화·불확실성·왜곡 등이 수반되는 추(醜)의 범주에 가깝다(Jo, 2004). 서양에서 유머는 좀 더 공격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익살이지만, 동양에서의 해학은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는 정서적인 측면을 가지는 개념이다(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1966). 특히 해학은 풍자와도 비슷하게 인식되지만, 풍자처럼 대상과 대립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보다 현실의 모순과 결함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관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풍자에 비해 좀 더 융통성과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다(Heo, 2015). 그러나 일반적으로 익살·유머·위트·기지·골계·풍자·아이러니·난센스 등과 같은 용어와 해학은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The Professors Tims, 2006).

2) 한국 전통 문화 속 사례

한국 전통 문화에서 해학은 풍속화, 구전 설화



Figure 8. 『타작』 .
From Choe. (2009). p. 246.



Figure 9. 경기도 장승.
From Lee. (1993). p. 110.

와 판소리, 전통 공예품인 장승 등에서 유희적 본능과 삶의 긍정적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학적 미의식은 우리의 전통 예술에서 동물의 의인화나 설화적 성격이 강한 인간의 표현·유희 본능을 가시화하는 작업, 우의와 풍자·반어를 통한 관계 제시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The Professors Tims, 2006). 이와 같은 해학의 사례를 전통 문화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타난 해학이다. 김홍도의 『타작』 <Figure 8>에는 노동을 하는 소작인과 소작인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 그림 속 소작인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으며, 체면을 지켜야 하는 관리자는 갓과 도포에 담뱃대를 들고 술에 취해 늘어져 있다. 김홍도의 『타작』은 소작농과 관리자와의 대립이 아닌 고된 노동 속에 피어난 소작농의 웃음과 관리자의 나태함을 풍자하는 해학이 드러나 있다(Chung, 2011b). 구전 설화에 뿌리를 둔 판소리 『토끼전』에서도 해학이 나타나고 있다. 『토끼전』은 자라가 토끼 간으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용궁으로 끌고 가지만 재치를 발휘한 토끼가 죽음의 위기로부터 탈출한다는 내용이다. 『토끼전』에서 토끼는 간을 지상에 꺼내놓고 왔다고 속임으로써, 용궁 최고 권력자인 용왕과 용왕에게 충성하는 자라의 우매함을 풍자하는 해학을 담고 있다(Jo, 2004). 한국 전통 공예품인 장승에서도 해학이 나타나고 있다. 고

을 어귀에 서서 땅을 신성하게 만들고 나쁜 기운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장승은 신물이며 신 그 자체이다. 재료는 흔히 보는 나무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얼굴의 생김새는 특 볼거진 눈망울과 주먹코 혹은 짙어진 눈으로 표현됐다(Figure 9). 장승의 성스러운 역할에 비해, 형태에 나타나는 익살스러움과 친근함은 권위나 성스러움과는 거리가 있는 해학을 드러낸다(Choe, 2000).

이 밖에도 다양한 장르에 나타나는 한국적 해학에는 희극적·놀이적·유머적인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그 시대의 주된 가치와 권력을 비꼬는 긍정적이며 유쾌한 익살이 나타나 있다.

3.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민화 300여 개 중, 관련 문헌에 해학적 특성이 언급된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으로 나누어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용

해학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풍속화를 중심으로 꽃을 활짝 꽃피웠으나 19세기 후반 민화로 옮겨갔다(Chung, 2011a). 해학은 민화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로, 서민 삶의 염원을 대변하고, 지배층 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비판을 익살과 재치로 나타내고 있다. 민화의 해학적 요소는 <Figure 10>에서와 같이 동물의 의인화나 <Figure 11>에서와 같은 과장된 인물상의 표정을 통해 익살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족 정서와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Kim, Y. G., 2001). 해학이 가장 잘 나타난 민화로는 『까치호랑이』가 있으며, 『까치호랑이』에 등장하는 까치와 호랑이는 민중과 현실의 권력 계층을 암시하고 있다. <Figure 12> 속 까치의 당당함과 호랑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현실 세계에 대한 풍자와 해학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권력과 영웅은 민화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공평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웅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또 다른 그림으로는 유비의 『삼고초료』가 있다(Figure 11). <Figure 11>에 나타난 유비와 관우는 모두 중국의 영웅들로 희화화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스꽝스럽게 표현됨으로써 웃음을 선사한다. 즉, 우스꽝스럽게 변형된 몸짓이나 형태 및 재미있는 표정 등을 통해 서민 특유의 감성과 모두가 공평한 서민들의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Chung, 2011a). 또한 해학적 아름다움은 민화에 나타난 문양과 형태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으며, 그 문양과 형태를 통해 서민들의 부귀(富貴), 영화(榮華), 장수(長壽) 등과 같은 염원 혹은 벽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Kim, Y. G., 2001).

2) 방법

일반적으로 해학적인 회화에서는 ‘생략과 과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한다(Heo, 2004). ‘생략과 과장’을 통해 표현되는 대상은 원래의 모습과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근원적 사고와 연결되어 생략을 통해 전체를 담고, 과장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Heo(2004)의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p. 93). 이러한 특징은 작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민화에서도 나타난다. ‘생략과 과장’은 <Figure 11>에서와 같이 영웅이라 불리는 유비와 관우, 장비를 과장된 몸짓과 단순하게 생략된 형태로 만들

어 희화화시키고 그림에 개성을 부여한다. 또한 <Figure 13>에서와 같이 숲의 제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를 커다랗게 과장된 눈과 단순하게 생략된 형태로 만들어, 제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까치와 대등한 혹은 약해 보이는 동물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생략과 과장’을 통해 영웅과 맹수와 같은 지배 권력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권위를 풍자하고, 주류 화풍이나 관념으로부터 탈피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Lee, 2010). ‘뒤틀림과 왜곡’은 <Figure 12>에서와 같이 맹수인 호랑이의 사납고 용맹한 모습을 뒤틀고 왜곡하여 고양이를 닮은 얼굴과 날카롭지 못해 보이는 발톱으로 표현함으로써 우스꽝스러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포악하고 무서운 호랑이를 이와 같이 ‘뒤틀림과 왜곡’에 의해 멍청해 보이도록 표현함으로써 서민을 상징하는 까치의 당당함이 드러나고 있다. 권력층을 대변하는 멍청한 호랑이와 서민을 대변하는 까치의 당당함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월감과 권력층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서민들의 이상향을 확인시켜 주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해학적 웃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해학적 그림을 감상할 때 권력층에 대한 비웃음이 흘러나오고, 현실 속의 자신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민화 속 해학은 삶 속에서 겪으며 습득하게 된 달관의 경지이며, 뒤틀림과 왜곡을 통해 대상이 가지는 일반적 이미지나 의미가 아닌 이중적 이미지를 전달하며 웃음을 선사한



Figure 10. 『담배 피는 호랑이』.
From Chung. (2011a). p. 175.



Figure 11.
『삼고초료』.
From Chung. (2011a).
p. 52.



Figure 12.
『까치호랑이』 1.
From Chung. (2012).
p. 215.



Figure 13.
『까치호랑이』 2.
From Chung. (2011a).
p. 54.



Figure 14.
『부용화』.
From Chung.
(2011a).
p. 47.

다(Lec, 2010). ‘변용과 상징’은 <Figure 14>에서와 같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식화하고 단순화된 문양의 형태와 의미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Figure 14>의 부용화 문양을 살펴보면, 부용화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화되고 간결해진 형태로 표현됐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된 <Figure 14>의 문양은 단순하게 꽃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용화가 지니는 의미에서 비롯된다. 민화 『부용화』에 나타난 문양과 같이 민화에 등장하는 문양은 정형화된 실제 형태가 아닌 ‘변용과 상징’을 통해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표현되며, 그 대상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용과 상징’은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형태를 파격적이며 자유분방한 하나의 문양으로 표현하고, 그 대상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상징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문양은 서민들의 염원을 표현하고, 우리 민족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함으로써 자유분방한 해학미를 지니게 된다(Kim, Y. G., 2001).

민화에 나타난 해학적 표현 특성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배 권력층에 대한 저항, 사회적 비판, 서민들의 이상향, 서민 삶의 염원이며, 이러한 내용을 비판적이지만 익살스러움과 재치 있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해학적 내용은 우스꽝스럽게 변형된 몸짓이나 형태, 재미있는 표정 등과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화의 내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생략과 과장’, ‘뒤틀기와 왜곡’, ‘변용과 상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

1. 기획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위하여 민화와 해학의 특징을 고찰하고, 민화에 나타난 해학적 표현 특성을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으로 적용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기획하고자 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Figure 15>와 같다.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은 첫째, 내용적으로 현대인들이 혹은 패션에서 추구하여 왔던 인체나 미의 과시에 대한 비판을 재치와 익살로 풍자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둘째, 방법적으로는 민화의 재료나 특성을 바탕으로 해학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었던 ‘생략과 과장’, ‘뒤틀기와 왜곡’, ‘변용과 상징’을 통해 작품을 표현한다.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기획은 <Table 2>와 같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개발의 의도는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의 활용에 있으며, 재료는 수채화용 물감과 종이 그리고 먹, 한국화 물감, 한지 및 포토샵(photoshop) 등을 사용한다. 색상은 오방색과 오간색을 기본으로 하여 톤(tone)을 조절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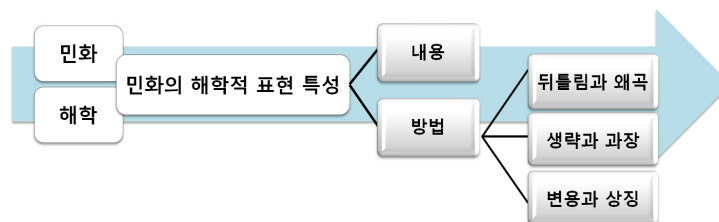


Figure 15.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프로세스.

Table 2.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 기획.

분류	특징	작품 기획
의도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 활용 내용 : 현대인이 추구하는 인체와 미의 과시에 대한 풍자 방법 : 뒤틀기와 왜곡, 생략과 과장, 변용과 상징	
재료	먹, 한국화 & 수채화 물감, 수채화용 종이, 포토샵, 한지	
색상	기본 색상 : 오방색과 오간색 보조 색상 : 톤 조절을 위한 다양한 색상	
기법	민화 & 수채화 기법, 콜라주	

으며, 표현 기법은 민화의 표현 기법에 수채화 기법, 콜라주(collage) 등을 혼용하고 더 나아가 포토샵을 통한 민화의 이미지도 합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획을 바탕으로 각각의 작품에서 추구하는 해학적 내용과 그 내용에 적합한 ‘생략과 과장’, ‘뒤틀기와 왜곡’, ‘변용과 상징’을 선택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2개씩 개발한다. 그 각각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내용과 방법으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첫째, 작품 I은 성형을 통해 추구하는 커다란 눈과 관능적인 입술에 대한 해학을 ‘생략과 과장’으로 표현한다. 둘째, 작품 II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날씬한 인체에 대한 해학을 ‘뒤틀림과 왜곡’으로 표현한다. 셋째, 작품 III은 부나 세련미를 대변하는 명품 가방에 대한 해학을 ‘변용과 상징’으로 표현한다.

2. 작품 개발

1) 작품 I

작품 I은 내용적으로 성형을 통해 규격화된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려는 현대인에 대한 해학을 담고 있으며, 방법적으로 ‘생략과 과장’을 통해 지나치게 커다란 눈과 관능적인 입술 그리고 단순화된 인체 라인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은 먹으로 라인을 표현하고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하였으며, 과장과 생략이 강하게 나타나는 까치호랑이 민화를 포토샵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작품 I



Figure 16. 작품 I-a의 얼굴. Figure 17. 작품 I-b의 얼굴.

과 합성하여 완성하였다.

작품 I-a와 작품 I-b는 과장을 통해 얼굴 밖으로까지 표현된 지나치게 큰 눈과 두툼한 입술 그리고 조그만 턱으로 얼굴을 표현하였으며, 인체의 형태와 선들은 생략을 통해 단순화하고 평면화하여 사용하였다(Figure 16), (Figure 17).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오늘날 성형을 통해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눈·코·입 비율의 얼굴을 풍자하고, 성형으로 규격화된 얼굴에 대한 해학을 표현하였다.

2) 작품 II

작품 II는 내용적으로는 현대인들과 패션 관계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추구하는 날씬한 인체에 대한 해학을 담고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뒤틀림과 왜곡’을 통해 지나치게 말라 뼈대가 보일 정도로 뒤틀린 인체의 가냘팜과 병약해 보이는 인체로 표현하였다. 작품은 먹으로 라인을 표현하고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하



Figure 18. 작품 II-a의 얼굴과 인체.



Figure 19. 작품 II-b의 인체.



Figure 20. 작품 III-a의 콜라주에 의해 표현된 의상.



Figure 21. 작품 III-b의 콜라주에 의해 표현된 머리카락.

였으며,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민화를 한국화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후, 포토샵으로 작품 II와 합성하여 완성하였다.

작품 II-a와 작품 II-b는 가냘픈 뼈대와 병약해 보이는 얼굴로 표현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구성하였다. 작품 II-a와 작품 II-b는 부에 상징 혹은 미의 상징으로 획일화되어 온 마른 몸매에 대한 동경을 다이어트 등으로 추구되어 온 병약한 인체 표현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II-a의 힘없는 자세와 다크서클(dark circle)을 통해 부를 상징하는 모란과 대조적으로 신체의 건강하지 못함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 II-b는 모란꽃으로 만든 의상이 버거울 정도의 가냘픈 몸을 통해 표현하였다(Figure 18), (Figure 19).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오늘날 다이어트를 통해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몸매를 풍자하고, 가냘프고 병약해 보이는 인체에 대한 해학을 표현하였다.

3) 작품 III

작품 III은 내용적으로는 현대인들이 부나 세련미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명품 가방에 대한 갈망과 소유욕에 대한 해학을 담고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변용과 상징’을 통해 부의 과시 혹은 세련됨의 상징인 명품 가방으로 여성의 의상과 머리카락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먹으로 라인을 표현







하고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하였으며, 콜라주 기법으로 명품 가방 사진을 잘게 찢어 붙여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완성하였다(Figure 20), (Figure 21). 또한 작품 III-a는 의상의 후드(hood) 부분을 가방 손잡이와 같이 디자인하고 고결함을 상징하는 연꽃 민화를 한국화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후 포토샵으로 작품 III과 합성하였다(Figure 20).

작품 III-a와 작품 III-b는 부나 세련미를 상징하는 명품 가방을 콜라주라는 기법을 통해 변용하고 의상과 인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III-a는 찢어 붙여진 명품 가방을 옷처럼 걸치고 아름답고 우아한 듯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마치 낡은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배경에 연꽃을 옆에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Figure 20). 작품 III-b는 머리 모양을 선을 이용해 표현하고, 그 사이를 명품 가방의 콜라주로 채움으로써 찢어 붙인 명품 가방과 인체를 합체하여 명품을 소유하고픈 욕망을 풍자하고 그에 대한 해학을 표현하였다(Figure 21).

IV. 결과 및 제언

민화는 민중들에 의해 그려지고 애호된 그림이

Table 3.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분류	해학적 표현 특성 및 특징	작품	
작품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성형을 통해 추구하는 커다란 눈과 관능적인 입술에 대한 해학 방법 : 생략과 과장 재료 및 기법 : 수채화물감, 먹, 포토샵 	작품 I-a	작품 I-b
			
작품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현대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추구하는 날씬한 인체에 대한 해학 방법 : 뒤틀림과 왜곡 재료 및 기법 : 수채화물감, 한국화 물감, 먹, 포토샵 	작품 II-a	작품 II-b
			
작품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부나 세련미의 과시를 위해 추구하는 명품 가방에 대한 해학 방법 : 변용과 상징 재료 및 기법 : 수채화물감, 한국화 물감, 먹, 포토샵, 콜라주 	작품 III-a	작품 III-b
			

라는 뜻이며, 조선 후기와 말기에 서민 대중들 사이에 유행한 독특한 형식의 그림을 뜻한다. 민화에 나타나고 있는 해학은 풍자와 비슷하게 인식되지만, 풍자에 비해 좀 더 융통성과 개방성을 지니며 현실의 모순과 결함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해학은 한국 전통 문화에서 유희적 본능과 삶의 긍정적 역할을 하며 풍속화, 구전 설화, 판소리, 전통 공예품인 장승 등으로 표현돼 온 한국적 정서이다.

민화에 나타난 해학은 내용적으로 지배 권력층에 대한 저항, 사회적 비판, 서민들의 이상향, 삶의 염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비판적이지만 익살스러움과 재치 있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민화에 나타난 해학적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은 ‘생략과 과장’, ‘뒤틀기와 왜곡’, ‘변용과 상징’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변형된 몸짓이나 형태, 재미있는 표정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민화의 해학적 표현 방법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은 현대인들 혹은 패션에서 추구하여 왔던 인체나 미의 과시에 대한 비판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표현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인 ‘생략과 과장’, ‘뒤틀기와 왜곡’, ‘변용과 상징’ 중 1개를 선택하고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춰 작품 2개씩을 개발하였다. 작품은 수채화와 민화에 사용되는 재료 그리고 포토샵 등을 사용하였으며, 오방색과 오간색을 기본으로 하여 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수채화와 민화에서 사용되는 표현 기법과 콜라주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포토샵을 통해 이미지를 합성하여 완성하였다. 첫째, 민화의 해학적 표현 방법을 활용한 작품 I은 현대인들이 성형을 통해 추구하는 커다란 눈과 관능적인 입술에 대한 해학을 ‘생략과 과장’을 통해 비율이 어긋난 눈·코·입의 얼굴로 표현하였다. 둘째, 작품 II는 현대인들과 패션 관계자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추구하는 날씬한 인체에 대한 해학을 ‘뒤틀림과

왜곡’을 통해 지나치게 말라 뼈대가 보이는 인체로 표현하였다. 셋째, 작품 III은 현대인들의 부의 과시나 세련미를 대변하는 명품 가방에 대한 해학을 ‘변용과 상징’을 통해 인체와 의상에 찢어 붙인 명품 가방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 개발을 통해 본 논문은 한국적 문화 콘텐츠로부터 우리만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찾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개발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화의 해학성만을 연구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전통 전반에 나타나는 해학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An, H. J. (2000). *한국회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painting]. Seoul: Sigongsa.
- Choe, J. S. (2000).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Aesthetics of the liberty]. Paju: Hyohyung.
- Choe, S. J. (2009). *단원의 그림책* [Picture book of Dan Won]. Paju: Artbooks.
- Chung, B. M. (1995). Buddhist paintings in Choson period: A comparative study of Min Hwa(民畵) and Min-Jian Nien-Hua(民間年畵). *The Art History Journal*, 7(-), 101-141.
- Chung, B. M. (2011a).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Anonymous painter's revolt Korean folk paintings]. Seoul: Dahalmedia.
- Chung, B. M. (2011b). Portrayal and significance of 'everyday life' in the genre paintings of late Joseon. *美術史學*, (25), 331-358. doi:10.14769/jkaah.2011.08.25.331
- Chung, B. M. (2012).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Korean folk painting, the most popular and Koreans]. Paju: Dolbegae.
- Fashion trend. (2016, February 1). *SDN*. Retrieved January 11, 2017, from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IndustryTrend/TrendView/content.asp?an=40192&glChk=&block=&page=&cnt=&keyword=hot+%26+trend>
- Ha, S. K. (2000).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olk painting. *Journal of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18(-), 135-152.
- Heo, G. (2004). *선인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 한국인의 미의식* [The traces of life left by the ancestors the aesthetics of Koreans]. Seoul: Daleunsang.
- Heo, G. (2006). *우리 민화읽기* [Read korean folk painting].

- Seoul: Bookfolio.
- Heo, G. (2015, February). 민화에 담긴 해학 그 정체를 말하다 [Talk about humor in Korean folk paintings]. *월간 민화*, pp. 50-54.
-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1966). *한국인과 한국문화* [Korean and Korean culture]. Kimpo: Kimpo University Press.
- Jo, Y. H. (2004). *한국미의 조명* [Shed light on Korea's beauty]. Seoul: Youlhwadang.
- Kim, J. S. (2001). *우리 그림 여행* [Our picture travel]. Seoul: Dongnyok.
- Kim, Y. G. (2001). 조선 후기 민화의 해학미 [The beauty of humor in the late Chosun folk painting]. *Problems in the Art of East and West*, 3(-), 1-27.
- Kweon, S. A., Kim, J. Y., & Yang, S. H. (2010). A study on the educational case of the fashion illustration by utilizing the components of folk painting, Chaekgado, as a Korean tradition. *Journal of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3(2), 127-136.
- Lee, G. Y. (2010). *민화에 홀리다* [Be absorbed in Korean folk painting]. Paju: Hyohyung.
- Lee, J. C. (1993). *장승* [Jangseung]. Seoul: Youlhwadang.
- Lee, J. Y. (201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un design on commercial spaces: Focusing on Food and Beverage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7(4), 141-153.
- Lee, S. G. (2004). *해학형성이론* [Humorous formation theory]. Seoul: Kyungin publishing.
- Nam, Y. S. (2003). *국어대사전* [Korean Dictionary]. Seoul: Sungсандang.
- Oh, S. K. (2006). A study of 'the sense of humor' in contemporary Korean style painting.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7(2), 103-116.
- Shin, K. H., & Kang, H. M. (2013). A study on futurism fashion design applying the traditional Korean Dokaebi patter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4), 21-40.
- Song, H. R., & Kim, H. K. (2011).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paintings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1), 103-120.
- The Professors Tims. (2006).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 논하다* [Discuss the beauty of our time].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 Yoon, Y. S. (2009). *민화이야기* [Story of Korean folk paintings]. Seoul: Design house.

Development of Fashion Illustration Utilizing the Characteristic of Humorous Expression of Korean Folk Painting

Lee, In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Visual Arts & Design, Gy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fashion illustrations by utilizing characteristics of humorous expressions from Korean folk paintings which make up country's national cultural. For study purposes, first, documents on humor and on approximately 300 folk paintings created betwee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the late stages of the Chosun Dynasty,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were best shown, were researched, an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that appear in these documents, humorous expression, was organized. Second, by applying these characteristics shown through research we have developed six fashion illustrations. Folk Painting refers to a picture drawn and enjoyed by ordinary people, and Humor particularly means the satire created by the decency in one's word or behavior that does not fit the comical air. Content-wise, humorous expressions in folk painting reflect people's lives, desires, resistance against power and social criticism, while method-wise, humor is made through 'twist and distortion', 'omission and exaggeration', and 'transformation and representation'. Drawing focus to these characteristics of humorous expressions in folk paintings, this study developed six fashion illustrations, whose contents feature satire on the ideal body image in the modern society and ostentation of beauty, each two focusing respectively on 'twist and distortion', 'omission and exaggeration' and 'trans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mit and exaggeration' was used to create humor in fashion illustration Work I, representing people's desire for big eyes and sensual lips through plastic surgery. In Work II, humor regarding women's pursuit of a slim body is expressed through 'twist and distortion'. In Work III, humor on designer bags as a representation of wealth and chic is accomplished through 'transformation and representation'. This study's development of humorous fashion illustrations holds significance in that these techniques were sought from Korea's cultural resources and were combined with fashion illustrations.

Key words : Korean folk paintings, humor, fashion illustrations